

• 마태복음 16:13-16

‘하나님의 아들’이란 호칭은 신적 존재, 즉 메시아임을 나타냅니다.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꺾박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충돌하고, 온 세상의 왕과 세상의 권세들이 충돌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큰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익투스’라는 물고기 문양으로 자신의 정체를 은연중에 알렸습니다.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 헬라어 앞 글자를 딴 단어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이름에 담긴 놀라운 의미와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풍부한 물이 흐르는 아름답고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쳐진 도시였으며, ‘판’(Pan)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자리 잡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권력과 물질, 화려한 우상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주일 예배 시간에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와 성공과 부 앞에서 예수님을 실제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찰스 콜슨은 매우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1세기에 만약 당신이 공공장소에서 ‘예수는 하나님입니다!’를 외쳤다면,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예수는 주시다!’라고 외쳤다면, 이것은 폭동을 일으키는 일이다.” 당시 ‘주’(키리오스)는 황제를 칭하는 호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것은 물질과 소유와 삶의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와 교회에 국한된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때는 일주일의 하루, 예배 시간만이 아닙니다. ‘예수는 주’라는 고백은 곧 나의 전 존재를 맡기고,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로 보고 듣고 선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 ① 신앙과 삶, 모든 영역의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 ②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며 방식입니까?